

Morning Meeting Brief

Daishin's View

[Daishin's View] 2026년 9월 2주차

- **금리:** 韓 백투백 인상 후 다음 인상 시기 조율, 수급 이슈 본격화 **환율:** 대내외 달러 공급 지속 & 자본유출 압력 완화로 하방 우위
- **국내 증시:**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글로벌 증시:** 9월 글로벌 증시, 계절적 약세 패턴 이기고 상승 무게
- **원자재:** 미국-이란 군사 충돌 재개로 상방 변동성 확대 **부동산:** 주택 초고가와 증저가 시장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금리 부담 완화에 투자심리 개선, 중동·엔 캐리 우려는 잔존

- 월러 발언에 금리 부담 완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 고유가·엔 캐리 부담 지속, 원화 강세는 증시에 득과 실 공존
-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반도체·정유·IT하드웨어 강세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Macro

미국 고용 : 임플로이 보다는 인플레

- 미국 8월 고용 +16.2만 명 서프라이즈, 실업률 4.1% 유지
- 7월 고용 감소 주도했던 정부/레저 부문 고용 곧바로 반등
-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 9월 FOMC 결정은 결국 CPI에 달려 있어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FX

FX: 여전히 위가 무거운 원화

- 달러 공급 우위 계속되며 달러-원 지난해 연저점 하회
- 과거 달러-원 단기 하락폭 감안 시 1,320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 가능
- 자본유출 올해 상반기처럼 심해지지 않는 이상 상단은 계속 무거울 것

이정훈, jhoon.lee@daishin.com

산업 및 종목 분석

[Initiation] 기계: 순환 너머 구조적 성장으로

- 기계산업 투자의견 비중확대(Overweight) 제시
- AI, 에너지, 광물 세가지 구조적 성장의 키워드
- Top-Pick: HD건설기계 / 차선회주: 두산밥캣

[Issue & News] SKT: 하이퍼와 호라이즌 투트랙

- 기존 DC를 담당할 호라이즌과 새로운 AIDC를 담당할 하이퍼의 투트랙
- 호라이즌 지분 일부 매각 대금 1.9조원 및 유증 1.2조원 등 3.1조원 유입
- 2GW 증설 후 DC 총매출 1.4~2.3조원, OP 2.4~4.3천억원 전망

김희재. hoijae.kim@daishin.com

2026년 9월 2주차

[금리] 국고 3년 3.60~4.05%

韓 백투백 인상 후 다음 인상 시기 조율. 美 기준금리 논란 + 본격화되는 수급 이슈
한국은 8월 백투백 인상을 통해 물가뿐만 아니라 높은 성장도 인상의 논거가 될 수 있음을 확인. 다만 향후 인상이 예상되는 시기까지 간극이 존재해 제한적 금리 하락 시도 가능. 미국은 기준금리 인상세에 대한 논란이 상존하는 가운데 국채 수급 부담이 금리 동향에 반영. 상대적으로 수급에 더 민감한 장기채 금리 변동성 위험 상존

[환율] 달러-원 환율 1,320~1,450원

대내외 달러 공급 지속 & 자본유출 압력 완화로 여전히 하방 우위

달러-원 2개월 만 200원 급락해 지난해 저점 1,350원 근접. 막대한 무역흑자에서 비롯되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 및 외국인의 원화 강세 베팅 지속
반면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및 내국인 해외투자 등 자본 유출 압력은 상당 부분 진정됨. 미국 금리 인상 불확실성 잔존하나, 가파른 인상 아니라면 수급 여건으로 추가 하락 가능

[국내 증시] KOSPI 5,000~9,300p

반도체 주도력 회복 & 비반도체 순환매. KOSPI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반도체 수출 모멘텀 확인, 밸류에이션/가격 매력을 바탕으로 KOSPI 시장 주도력 회복. 비반도체 또한 수출, 실적 모멘텀과 수급 개선, 채권금리 안정시 순환매 강화. KOSPI 12개월 선행 PER 6배 이하, 밸류에이션 정상화 국면 전개 중. KOSPI 6,800 ~ 7,000선 안착시 1차 반등 목표 선행 PER 7배(8,500선) 가시권에 들어올 전망

[글로벌 증시] S&P500 7,000~8,400p

9월 글로벌 증시, 계절적 약세 패턴 이기고 상승 무개. 변동성 확대 시, 비중확대

9월 미국 증시, 최근 5년 동안 계절적 약세. 9.30일 정부 회계연도 종료 앞두고 국채 발행, 금리 상승, 위험선호심리 약화 영향. 대형 기관, 분기 말 대규모 리밸런싱 영향
하지만 올해 9월은 2/4분기 실적 모멘텀, 성장 둔화 및 물가 하락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 바탕 연준 완화적 통화정책 기대 커지며 상승 방향 예상. 변동성 확대 시 비중 확대 탐색 기회 활용

[원자재] WTI 75~95\$/bbl.

미국-이란 군사 충돌 재개로 상방 변동성 확대. TACO 재개될 수 있지만 문제는 공급망 신뢰성↓

미국-이란 간의 군사 충돌 재개, 이란 주요 시설과 역내 미군 기지 이외에도 호르무즈 해협 항행하는 유조선까지 피격. 유가는 중동 공급망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배럴당 90달러 재돌파

물론 중간 선거 앞두고 TACO(예: 휴전, 협상 재개) 재개 가능. 다만, 문제는 보험사 입장에서 신뢰를 공급망이 신뢰를 잃었다는 것과 낮아진 SPR 재고가 가격 상방 변동성을 높인다는 점

[부동산] 주택: 강보합, 상업: 약보합

주택 세제개편으로 초고가와 중저가 시장 차별화, 상업용 기간 조정 장기화 전망

주택 : 세제개편 영향으로 초고가 시장 조정, 전세가를 높은 중저가 지역 및 구매력 급증한 수도권 동남권 지역 가격 상승 지속 예상. 임대 시장은 전반적 강세 전망
상업 : 지속적 시장 금리 상승과 오피스 임대 시장 둔화로 보수적 관점 필요, 물류 센터는 우량 자산 중심으로 임대 시장 회복 나타나 조정 시 선별/분산 투자 의견 유지

Strategy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금리 부담 완화에 투자심리 개선, 중동·엔 캐리 우려는 잔존

- 월러 발언에 금리 부담 완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 고유가·엔 캐리 부담 지속, 원화 강세는 증시에 득과 실 공존
-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반도체·정유·IT하드웨어 강세

월러 발언에 금리 부담 완화,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강세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는 최근 물가 지표에서 디스인플레이션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 향후 2주간 발표될 지표에서도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경우 금리 동결을 지지하겠다고 언급. 이에 CME FedWatch 기준 9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은 전일 36.79%에서 49.57%로 상승

미국 8월 ISM 서비스업 PMI는 55.4p로 예상치와 이전치를 모두 상회하며 견조한 서비스업 경기를 확인.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표였으나, 월러 이사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최근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주요국 국채 금리가 진정되면서 투자심리도 개선. 미국채 2년물과 10년물 금리는 각각 4.34%, 4.76% 수준으로 하락했고,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도 2.92%까지 낮아지며 아시아 증시 전반 강세 마감

고유가·엔 캐리 부담 지속, 원화 강세는 증시에 득과 실 공존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란이 상선 공격을 중단하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고 언급하며 중동 지역의 긴장감 재차 고조. WTI와 브렌트유 선물이 각각 배럴당 91달러, 95달러를 상회하며 고유가 흐름을 이어간 점도 증시에 부담

달러-엔 환율의 가파른 하락도 주목할 변수. 9월 BOJ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금리 인상 기대가 높아지며 엔화가 강세를 보였고, 엔 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이 부각되며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를 제약

한편 엔화 강세에 원화도 동조하며 달러-원 환율은 1,350원 수준까지 하락. 원화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 수급 여건에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과도한 달러-원 환율 하락은 수출주의 원화 환산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 존재

실적 대비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확산, 반도체·정유·IT하드웨어 강세

미국채 금리 상승세 진정되며 투자심리 개선, 저평가 업종으로 순환매 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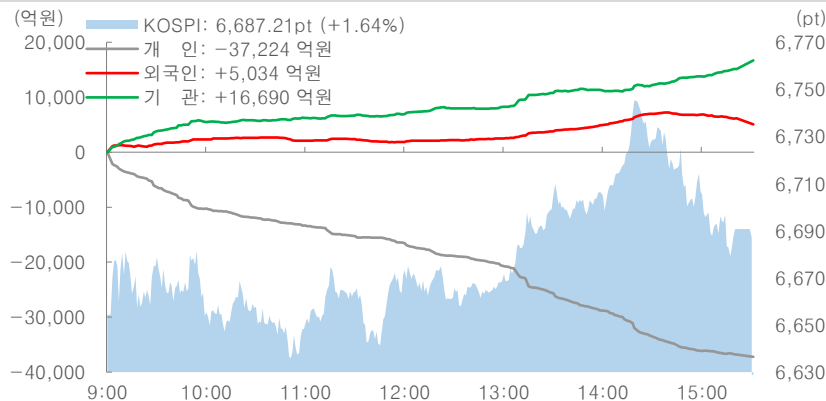
반도체: 삼성전자(+2.2%), SK하이닉스(+3.2%), 한미반도체(+9.3%)

정유: SK이노베이션(+5.7%), S-Oil(+6.4%), GS(+4.2%)

IT하드웨어: 삼성전기(+3.9%), 이수페타시스(+4.8%), LG이노텍(+1.1%)

금융: KB금융(-3.3%), 신한지주(-3.7%), 하나금융지주(-3.7%)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Macro

Economist 이정훈, CFA
jhoon.lee@daishin.com

미국 고용: 임플로이 보다는 인플레

- 미국 8월 고용 +16.2만 명 서프라이즈, 실업률 4.1% 유지
- 7월 고용 감소 주도했던 정부/레저 부문 고용 곧바로 반등
-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 9월 FOMC 결정은 결국 CPI에 달려 있어

6-7월 부진을 딛고 급반등한 고용

미국 고용 약세가 불과 2개월 만에 뒤집혔다. 8월 비농업 취업자는 +16.2만 명 증가해 올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직전 2개월치 고용도 +5.5만 명 상향 조정되었다. 3개월 평균 고용 증감은 지난달 발표 당시 +2.0만 명까지 둔화되었으나, 이달 +7.1만 명으로 반등했다.

실업률은 4.1%로 전월 수준을 유지했고, 시간당 임금은 +0.3%MoM / +3.1%YoY 상승했다. 임금상승률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아래로 하락했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연내 2%대로 둔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거의 정확하게 되돌려진 7월 부진

지난달 고용이 감소로 발표되었을 때, 당사는 펀더멘털 이상 보다는 정부 및 레저 부문의 일시적인 일자리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8월 들어 정확히 반전되었다. 7월 -5.0만 명 감소했던 정부 고용은 8월 +3.5만 명 반등했고, 2개월 연속으로 감소했던 레저 일자리도 +6.2만 명으로 3년 반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 외에도 이번 고용지표에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았는데, 6-7월 급락했던 경제활동 참가율이 일부 반등했고, 고용확산지수는 55.6으로 202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동시장 개선이 꽤 광범위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 보다는 CPI가 9월 FOMC를 결정

결국 지난달 고용 쇼크 당시 언급했던 것과 같이 현재 노동시장은 뜨겁지 않을 뿐 펀더멘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무엇보다 대량 해고의 조짐이 없다. 오히려 경기 변동에 민감한 제조업/건설업 부문의 고용은 호조에 가깝다. 이는 잭슨홀 미팅에서의 워시 의장의 평가에 부합한다.

다만 8월 고용 호조가 9월 FOMC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 해맥 총재와 같은 금리 인상론자들에게는 금리 인상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었을 수 있으나, 월러 이사의 발언이 시사하듯 여전히 연준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워시 의장은 임금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유의미한 선행지표가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으나, 굳이 따지자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것 보다는 안정적인 것이 훨씬 낫다. 9월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짓는 것은 오는 금요일 발표될 CPI가 될 전망이다.

아직도 위가 무거운 원화

- 달러 공급 우위 계속되며 달러-원 지난해 연저점 하회
- 과거 달러-원 단기 하락폭 감안 시 1,320 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 가능
- 자본유출 올해 상반기처럼 심해지지 않는 이상 상단은 계속 무거울 것

달러-원 1,350 원 하회

달러-원 환율은 9/4 일 장중 1 년 여 만에 1,350 원을 하회했다. 야간거래에서는 1,340 원대 중반까지 하락했다. 1,400 원을 하향 돌파한 지 2 주 만에 지난해 저점이었던 1,350 원 아래로 내려왔다. 수급 상 달러 매도 우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 후반 엔화가 BOJ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갑작스레 강세로 돌아서자 이에 연동되었다.

과거 낙폭 감안 시 1,320 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 가능

심리적 지지선인 1,350 원이 무너진 만큼 다음 지지선인 1,300 원 초반까지 하단을 더 열어줄 필요가 있다. 과거 달러-원의 단기 하락은 대부분 -15% 선에서 마무리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1,320 원 부근까지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

달러 인덱스가 현 레벨보다 더 크게 하락할 경우 달러-원도 이를 따라 1,300 원 초반 아래로 내려갈 수 있으나, 당사는 이번 9 월이 아니라도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 달러 하방은 지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그 외에도 지난해 1,300 원대 중반 환율에서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가 종료되었다는 점, 삼성전자 특별 배당 지급 이후 역송금 수요(배당 금액의 20% 내외 추산) 등이 하단을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다.

환율 바닥이 잡혀도 상방은 계속 무거운 가능성 높아

당사는 지난 8/21 일 코멘트에서 환율 추가 하락에 무게를 두는 이유로 기업의 환전 수요로 달러가 공급되는 것에 비해 자본 유출 압력은 크게 둔화되었다는 점을 언급한 바 있다. 지난주 발표된 7 월 경상수지 데이터에서 이러한 모습이 고스란히 나타났다.

경상수지는 420 억 달러 흑자로 역대 2 위를 기록한 반면 직접투자는 41 억 달러, 증권투자는 54 억 달러에 그쳤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 개월 간 해외증권투자자와 주식투자가 경상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5%, 82%에 달했으나, 7 월에는 13%, 15%에 불과했다. 이러한 달러 초과 공급은 고스란히 외화 예금이나 은행들의 단기 외화대출을 통해 기타투자(58 억 → 275 억 달러)로 반영되었다. 연일 급락 중인 환율도 결국에는 바닥이 잡히겠지만, 수급 여건 상 대외 악재 등의 예상치 못한 변수에 의해 올해 상반기처럼 자본유출 압력이 심화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제는 환율의 상방이 많이 무거워진 것으로 보인다.

기계

순환 너머 구조적 성장으로

- 기계산업 투자 의견 비중 확대(Overweight) 제시
- AI, 에너지, 광물 세가지 구조적 성장의 키워드
- Top-Pick: HD건설기계 / 차선후주: 두산밥캣

기계산업 투자 의견 비중 확대(Overweight) 제시

20~24년 굴삭기, 로더 등 건설기계 딜러 재고 축소, 25년 회복기를 거쳐 26년 본격 상승 사이클에 돌입. 현재 북미 딜러 재고는 3~5개월 적정 수준으로 정상화되었으며 AI 관련 투자에 따른 건설기계 수요 증가로 실적 개선 및 멀티플 리레이팅이 동반될 것. 국내 건설기계 기업은 기존 중소형 장비 중심의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대형 장비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엔진 내재화, 애프터마켓(AM)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글로벌 플레이어와의 멀티플 격차 축소를 전망

AI, 에너지, 광물 세가지 구조적 성장의 키워드

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망 증설 및 데이터센터 건설, 천연가스 인프라 확충이 건설기계 수요를 구조적으로 견인 중. 또한 자원 안보 확보를 위한 전세계 광산 개발 증가 및 구리·금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고마진 중대형 건설 장비 투입이 급증하는 추세. 기존 핵심 시장이었던 북미, 유럽 뿐 아니라 아프리카, 중남미, 인도 등 신흥 시장 내 대규모 토목 공사 및 인프라 투자가 병행되며 건설기계 시장 확대를 전망

Top-Pick: HD건설기계 / 차선후주: 두산밥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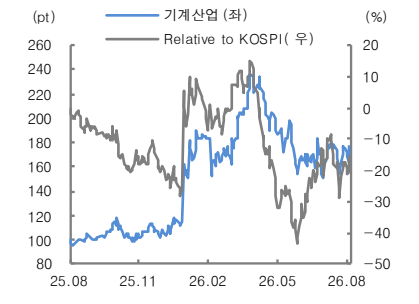
1) HD건설기계: 26년 연결 기준 매출액 9,8조원(+18.1% YoY), 영업이익 7,720억원(+68.7% YoY, OPM 7.8%)으로 26년 가이던스였던 매출액 9조원, 영업이익률 5~7% 상회할 것. 대형으로의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 엔진 내재화 및 신규 엔진 출시를 통해 영업이익률 지속 개선을 전망

2) 두산밥캣: 28년까지 CAGR 3~5% 성장을 전망. 26년 추정 DPS는 2,000원 배당성향 40%으로 배당수익률은 약 3.2%. 26년 기말 기준 동사 현금성 자산은 약 2.3조원으로 추정, M&A를 포함한 추가적인 주주환원 정책을 기대

Rating & Target

종목명	투자의견	목표주가
HD건설기계	Buy	200,000
두산밥캣	Buy	77,000
진성티아씨	Buy	18,000
전진건설로봇	Buy	50,000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0	-8.0	16.5	82.0
상대수익률	0.8	18.9	-11.3	-12.9



영업실적 및 주요 투자지표

(단위: 십억원, 원, 배, %)

	2024A	2025A	2026F	2027F	2028F
매출액	13,286	13,363	19,874	21,933	23,528
영업이익	1,196	943	1,617	1,878	2,229
세전순이익	1,060	786	1,543	1,644	2,092
총당기순이익	752	559	1,129	1,208	1,537
지배지분순이익	766	573	1,132	1,211	1,541
EPS	14,638	13,391	20,477	22,346	28,456
PER	7.8	14.4	11.8	11.1	8.7
BPS	178,955	198,160	207,877	235,618	267,303
PBR	0.7	0.9	1.0	0.9	0.8
ROE	8.4	6.0	8.7	8.3	9.5

자료: HD건설기계, 두산밥캣, 진성티아씨, 전진건설로봇 합산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SK텔레콤 (017670)

김화재

hojae.kim@daishin.com

투자의견

BUY

매수, 유지

6개월 목표주가

110,000

유지

현재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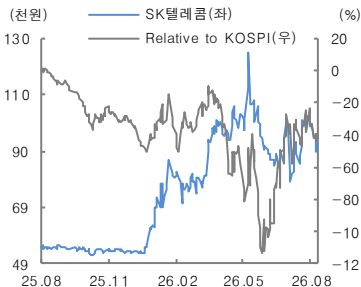
92,500

(26.09.04)

통신서비스업중

KOSPI	6687.21
시가총액	19,868십억원
시가총액비중	0.30%
자본금(보통주)	30십억원
52주 최고/최저	125,200원 / 52,100원
120일 평균거래대금	1,347억원
외국인지분율	34.28%
주요주주	SK 외 11 인 30.60% 국민연금공단 8.46%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1.2	-15.1	31.6	69.1
상대수익률	-3.8	9.7	0.2	-19.1



하이퍼와 호라이즌 투트랙

- 기존 DC를 담당할 호라이즌과 새로운 AIDC를 담당할 하이퍼의 투트랙
- 호라이즌 지분 일부 매각 대금 1.9조원 및 유증 1.2조원 등 3.1조원 유입
- 2GW 증설 후 DC 총매출 1.4~2.3조원, OP 2.4~4.3천억원 전망

투자의견 매수(Buy), 목표주가 110,000원 유지

목표주가는 26E EPS 7,418원에 PER 13배 적용 후 Anthropic의 Pre-IPO 가치인 3.6조원(Series H USD 965bn에 약 0.25% 지분 적용)을 반영하여 산정

Anthropic IPO 후 약 USD 2trn의 시가총액이 형성될 경우 SKT의 지분가치는 7.5조원, 이를 반영한 목표주가는 13만원 가능

PER 13배는 최근 5년 통신업(KT, LGU+ 기준) 평균 10배 대비 30% 할인 적용

SK 하이퍼와 SK 호라이즌의 투트랙 전략

호라이즌은 구축 중인 울산 AIDC 100MW, 구로 AIDC 75MW 등 총 318MW 운영 하이퍼는 울산 AIDC 2단계 등 29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5GW와 35년부터 단계적으로 오픈하는 누적 15GW 운영. 단기적으로 30~31년경 2GW 운영 가정

27.2월에 SKB에서 인적분할로 출범하는 SK 호라이즌은 데이터센터(DC, 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와 해저케이블 사업 영위. SKT는 다시 호라이즌의 지분 37%를 1.88조원에 KKR과 IMM에 매각, 매각일은 27.3.4

호라이즌은 SKB의 순자산 16%로 출범하는데 전체 기업가치가 5조원 수준으로 산정되었기 때문에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다고 판단

이와 별도로 호라이즌은 KKR과 IMM을 대상으로 1.2조원의 신주 발행

호라이즌의 최종 지분율은 SKT 51%, KKR 29%, IMM 20%

중장기 SKT의 AIDC 사업은 SK 하이퍼가 담당. 하이퍼는 자본금 7.5천억원(이후 증가 가능)으로 출범 후, 각 AIDC를 PJT 형태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 전망

호라이즌 지분 일부 매각 대금인 1.88조원은 우선적으로 호라이즌의 AIDC 확장에 투입되겠지만, 일부는 하이퍼의 AIDC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

SK 하이퍼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은 열려있다.

하이퍼의 자본금 7.5천억원은, 2GW AIDC 공사비(GPU 제외) 약 30조원의 2.5% 토지와 전력 설비 및 고객 확보와 BM 제시 등의 역할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높은 수준의 지분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 각 AIDC별로 발생하는 매출을 인식 후 지분율만큼 이익으로 인식하거나, 지분율을 감당한 수수료 매출로 인식 또는 최종 손익에 대한 배당 등 다양한 형태 가능하나, 규모는 작을 것으로 전망

SKT의 AIDC 사업 전략은 low risk 추구이나, 하이퍼에 대한 추가 투자 가능성은 열려있기 때문에, 30~31년경 AIDC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시점의 하이퍼에 대한 유호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25년 SKT의 DC 매출은 3.9천억원, AIDC 2GW 운영 기준 매출은 1.4~2.3조원, 영업이익은 2.4~4.3천억원 전망. 매출 8~13%, 영업이익 11~20% 증가 효과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